

##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들은 관광객들 중 ‘3퇴’ 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밍후이왕] 중국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재판 이후 유럽 관광지에서는 많은 대륙관광객이 자발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찾아와 생체장기적출에 대해 파룬궁(수련생)이 어떻게 말하는지 듣고 싶다고 했다. ‘3퇴’를 한 이들 관광객들은 진상자료를 한 무더기 안고 “이번에 나와서 수확이 큼니다”라고 말했다.

**다섯 젊은이 “우리는 파룬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다.”**

차를 기다리던 서북단대의 다섯 젊은이가 수련생에게 다가와 말했다.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몸에서 장기를 떼어낸 것이 사실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려주시지요. 우리는 파룬궁(수련생)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탈당센터 봉사자는 “인터넷에 접속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보시라이의 가장 큰 죄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하고 사체를 판매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공은 보시라이의 이 대죄를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후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적출하는 범죄행위는 보시라이가 집권하던 대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



파룬궁 수련생이 2013년 9월 15일 파리 에펠탑 옆 인권광장에서 관광객에게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떼어내는 중공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등 파룬궁이 박해받는 진상을 알리고 있다.

중에 다시 전국으로 퍼져나가 10여 년 동안 계속 되었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끼어들어 한마디 했다. “그것은 보시라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걸요?” “그렇습니다. 전체 중공의 죄악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녹음 파일 하나가 폭로 되었는데 2006년 9월 보시라이가 상무부장으로 있을 때 원자바오를 따라 독일을 방문할 당시 보시라이가 전화상에서 ‘장쩌민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당시에 녹음을 해서 지금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또 한사람이 말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겠습니까? 장쩌민이 보시라이에게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이렇게

됐으니 장쩌민이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지었다. “공산당은 너무 나쁩니다. 그들은 꼬집고 때리는데 자신을 위해 이익을 쟁탈하는 것이 어디 우리 백성이나 인민의 복지나 국가민족을 위해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국인이지만 중국에 있기가 싫어집니다. 우리가 애국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면 억울하지요. 지금의 중국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오염은 말하지 않더라도 정치에서는 너무 암흑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덧붙였다. “공산당이 이렇게 큰 죄를 범했으니 하늘이 중공을 멸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마땅히 멸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는 “한 마디 더 있는데 아십니까? ‘3퇴’하면 평안을 보장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젊은이들은 즉시 “탈퇴할게요. 모두

탈퇴합니다. 탈퇴해서 평안을 보장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관광객들 “파룬궁 박해는 장쩌민의 계락임을 우리는 다 안다”**

많은 관광객이 생체장기적출이 어떻게 된 일인가를 묻는다.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닌데 누가 감히 두둔해 주겠는가? 장래에는 남김없이 책임져야 한다.

어느 관광객이 말했다. “그리고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진짜 죄목이 있습니다. 생체장기적출과 노동교양소, 감옥 그런 검은 내막입니다. 이것은 공산당 전체가 한 것입니다. 왕리쥘에게 한 몫, 구카이라이에게 한 몫, 보시라이에게는 더 큰 한 몫이 있지요. 이는 정법위 서기 뤼간, 저우융캉이 친히 지휘해서 한 것이고 장쩌민은 총 두목으로 가장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여행객은 “그들은 개가 개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생체장기적출 이런 일은 그들 스스로가 물어낼 것입니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장쩌민의 계락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가 어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을 이었다.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들은 관광객들 중 ‘3퇴’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자승자박(自繩自縛) - 중공 고위직의 종말

[밍후이왕] 예로부터 ‘머리 석 자 위에 신령이 있어 누가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면 보응을 받는다’는 말이 있다. 중공고위직 중에 그런 악독한 일을 한 사람들의 결말을 본다면, 당신은 선악에는 보응이 있다는 천리(天理)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 1956년 친청(秦城)감옥을 건설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베이징 시장 쑹진(彭真), 공안부장 톈루이칭(羅瑞卿), 베이징 공안국장 쑹지핑(馮基平)이다. 그런데 1966년 마오쩌둥에 의해 가장 먼저 친청 감옥에 감금된 사람이 바로 이들 세 사람이다.

2. 1957년 ‘반 우파’에서 제일 먼저 뛰쳐나와 지식인 장버쥔(章伯鈞)을 비판하라고 한 사람이 바로 우한(吳晗)이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당시 가장 먼저 타도당한 문인시장이 바로 우한이고, 그 뒤 1967년에 가장 먼저 자살한 사람 역시 우한이다.

3. 1958년 군대 ‘반 교조주의’ 운동에서 류버청(劉伯承), 쑤위(粟裕), 샤오커(蕭克) 등을 처음 비판한 사람은 쑹더화이(彭德懷)이다. 하지만 1959년 노산(始作俑者)회의에서 가장 먼저 숙청된 사람 역시 쑹더화이다. 쑹은 나중에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에게 무참히 살해됐다.

4. ‘후풍(胡風)사건’에서 앞장서서 전력을 다해 후를 비판한 문인 무뢰한은 저우양(周揚)이다. 하지만 나중에 ‘문화대혁명’ 당시 선봉에서 숙청당한 문인 무뢰한 역시

저우양이다.

5. ‘옌안정풍(延安整風)’에서 마오 도독을 대신해 가장 끈질기게 남을 괴롭힌 사람은 류사오치다. 1966년에 비판받은 류사오치는 홍위병에게 폭행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치욕을 당했다. 1969년 카이펑(開封)의 한 지하실에서 고통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6. ‘문화대혁명’ 당시 마오쩌둥을 가장 치켜세우고 신격화하며 마오를 위해 군주 주변의 간신들을 제거한 사람은 린바오다. 하지만 그는 1971년 마오와의 권력투쟁에서 실패한 후 일가족 3명이 미스테리한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7. 1955년 마오는 7기 5중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판한넨(潘漢年)을 제거하며 한 차례 숙반 운동을 일으켜 ‘적의 첩자’들을 숙청했다. 판한넨은 항일전쟁시기 마오와 일제를 위해 ‘상호 불침범’ 약속을 얻고 잠시 왕위정부와 연락한 ‘홍색’ 스파이였다.

8. ‘문화대혁명’시기 ‘마오주석 어록’과 ‘림표 어록’에 곡을 붙여 유명해진 리제푸(李劫夫)는, 바로 그 ‘큰 공’으로 인해 마오에게 감금되어 사망했다.

9. 왕리쥔은 라오닝성 테링(鐵嶺)과 충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고문하는 한편, 살아있는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떼 내어 폭리를 도모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중공을 위해 목숨을 팔다가 중공에게 15년

판결을 당했다.

10. 보시라이는 라오닝과 충칭에 있는 동안 ‘창흥타흑(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예찬하고 범죄와 부패를 척결)’으로 문화대혁명을 복원했다. 대대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생체장기적출 죄악에 발을 들여놓은 보시라이는 이미 중공에 의해 감옥에 갇혔다.

.....

위의 사례가 다만 놀라운 우연의 일치일까? 당연히 아니다. 이것은 중공의 반(反)자연, 반인성적인 사악한 본성이 가져온 것이다. 동시에 선악에는 보응이 있고 천리(天理)는 분명하다는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공 당 패거리와 흉악한 경찰은 요행 심리를 갖지 마라. 누가 나쁜 짓을 했으면 반드시 그는 감당해야 한다. “누가 어떤 문제에서 공산당을 믿었다면, 그 문제로 인해 목숨을 내주게 될 것이다.” 악행을 멈추고 잘못을 고치며 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만이 목숨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다.





## 바이러스성 C형간염 환자가 겪은 것

[밍후이왕] 나는 창춘사람이다. 아래에 나의 진실한 경험을 말해보려 한다.

나는 올해 52세이고 실업자다. 2008년 말 온 몸에 힘이 없고 얼굴이 노랗게지며 밥을 먹지 못해 병원에 가서 검사했다. 의사에게 바이러스성 C형간염이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멍해졌다. 어떻게 이런 병에 걸린단 말인가?

그날부터 병원에 1년 넘게 입원해 있으면서 수임항생제를 맞았는데 1대에 1천3백66원이었다. 나는 갈수록 얼굴이 노랗게 아위었으며 매일 고열에 시달려보는 사람마다 무서워했다. 나는 생활에 희망을 잃고 매일 눈물로 얼굴을 적셨다. 통증으로 괴로웠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과 경제에도 큰 손실을 주었다.

절망적인 순간에 한 대법제자가 나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전법륜(轉法輪)'한 권을 주며 대법사부는 제자에게 신체를 정화시켜주고 '진선인(真 善, 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했



2013년 한가위를 맞아 중국의 파룬궁수련생은 사부를 더욱 그리워하고 있다. 위 그림은 창춘대법제자가 정교하게 만들어 밍후이왕에 발표한 축하카드로 사부에 대한 그리움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다. 대법은 성명쌍수(性命雙修) 공법이 라는 것과 일부 대법제자에게 연공 후 나타난 신기한 일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나는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고 '전법륜' 4강의를 읽을 때 반응이 나타났다. 말할 때 힘이 있고 정신이 나서 대법사부께서 나를 관리해 주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것처럼 짧은 시간에 나타난 변화라

믿기가 좀 어려웠다. 이어서 계속 범공부를 하고 연공하자 정말로 신기한 변화가 발생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C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가 내려갔고 양성이 음성으로 변했다.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에 의사도 이렇게 빨리 나은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위대하신 사부님께서 나의 병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병 통증에서 벗어나 진정하게 병이 없이 온 몸이 가벼운 아름다운 느낌을 체험했다. 사부님은 나에게 오늘의 생명을 주셨다.

나의 변화를 통해 가족과 친지들은 파룬파과(法輪大法)의 신기함을 보게 되었다. 어떤 친척은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기구)에서 일하며 대법제자를 체포했었다. 나의 변화를 보고 나서 대법에 대한 태도를 개변하고 탄복하며 '3퇴'를 했다. 주변의 이웃과 친척도 3퇴를 했고 대법수련을 시작한 사람도 있다.

## '추적국제' ,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증거 전집을 발표

2013년 9월 12일, 파룬궁박해추적 국제조직('추적국제'로 간칭)은 '추적국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증거 전집'을 발표하여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한 주요한 증거를 폭로했다.

이러한 증거 자료는 중공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죄악이 확실히 존재함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천인공노할 죄악이 단지 일부 지역에서 우연히 발생한 재물을 탐해 인명을 해친 사건이 아니라, 장쩌민(江澤民), 저우융캉 등 중공(중국공산당) 악당의 최고 당국이 국가 기구를 동원하여 전국 범위에서 조직적으로 행한 집단학살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실증했다.

바로 정부 당국의 지휘와 보호 하에 사법계통과 군대, 무장경찰, 의료기관

등이 연합하여 감행한 체계적인 범죄인 것이다. 군대, 무장경찰병원과 기관이식센터는 파룬궁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범죄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장소이다.

전집에서는 19개의 녹취록과 부분적인 조사보고를 다루었는데 이러한 증거는 서로 검증하고 보충하고 있다. 이런 내재적인 논리관계가 밝혀 주고 있는 체계적인 범죄 행위들은 이 안건의 사악함이 이미 인류의 정상적인 사유범위를 넘어 섰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추적국제'는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행동으로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집단학살의 박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지할 것을 제청하고, 중공의 반 인류 죄악을 철저히 추적조사 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추적국제'는 국제사회 정의의 역량을 바탕으로 형사기구와 서로 협조하여 조금도 멈추지 않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일체 죄행 및 유관 기구, 조직과 개인을 철저히 추적 조사할 것이며, 하늘 끝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를 막론하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피해자를 도와 흉수를 법정에서 세우고 엄중하게 징벌하여 세인을 각성시킬 것을 천명했다.



# 국장 “벌써 탈퇴하고 싶었다. 나는 벌써부터 그것을 알아봤다.”

한 단체관광객이 인솔자를 에워싸고 휴식할 때 탈당센터 봉사자가 앞으로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선생님 행동거지가 비범한데 혹시 고위층 간부가 아니십니까?” “관직은 높지 않습니다” 봉사자는 농담을 섞어 “그래도 사국급은 되겠지요. 부급 말고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상대방은 피식 웃으며 “정급 부급도 보아 내다니 탄복입니다”라고 말했다. 봉사자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나는 벌써 탈퇴하고 싶었습니다. 난 진작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아직 탈퇴하지 않았으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는 즉시 “좋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진작 탈퇴하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탈퇴하는지 묻



2013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 68회 유엔 정상회담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유엔 본부 건물 앞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사실을 폭로하고 박해를 저지하기를 호소했다.

자 그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탈당을 해도 선생님의 밥줄에는 영향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지 당조직에 가서 탈퇴한다고 성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명으로 인터넷에서 탈퇴하고 마음속에서 중공

과 선을 그어 예전에 중공이 찍은 사악한 낙인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선생님이 동의한다는 정보를 적고 집에 가서 대기원 사이트에 가명으로 탈당을 성명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인터넷보배사이트를 돌파해 대기원사이트에 올라갈 수 있다면 스스로 탈퇴해도 됩니다. 어디에 가입했든 그것에서 탈퇴하는데 3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탈당희망이 실현되어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선생님을 도와 기쁩니다.”

봉사자의 말을 들은 그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상자료를 달라고 했다. “한 부 가져가서 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봉사자가 함께 온 다른 여행객의 ‘3퇴’를 접수하니 국장은 한 여사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처장입니다”라고 알려주었다. 봉사자는 고개를 돌려 처장에게 “선생님은 신불을 믿나 봐요. 미륵불 옥

목걸이를 거셨네요.”라고 말했다. 여 처장은 미소를 지었다. 국장은 옆에서 “저 사람은 정치급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봉사자와 여 처장은 보시라이사건과 중공이 어떻게 죄악을 은폐하는지를 말하며 다시 한 번 중공의 거짓말과 폭력에 대한 사악한 본질을 폭로해냈다. 여 처장은 “좋아요. 탈퇴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간부도 신속히 탈당하는 것을 본 그 버스의 관광객은 두말 않고 묻는 사람마다 탈퇴하여 잠시 만에 모두 다 깨끗이 탈퇴했다. 어떤 관광객은 진상자료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한 차에 탄 여행객들에게 질서를 잡아주며 “갖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차에서 같이 보세요.”라고 말했다.

비록 유럽관광업은 비수기에 접어들었지만 삼퇴하는 대륙관광객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체 관광객이 인솔자에게 탈퇴하라 하고, 인솔자가 관광객들에게 탈퇴하라 하며 서로 탈퇴를 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 가족 삼대는 서로 끌고 당기며 와서 모두 삼퇴를 한 후 봉사자에게 인사를 하고 손을 잡으며 감사하다고 하고 각종 아름다운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파룬궁을 배우고 싶다며 ‘전법륜’을 보겠다고 했다.

## 유엔 인권 대회서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을 폭로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HRC) 회의가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렸다. 파룬궁 인권대표 천스중(陳師眾) 박사가 지난 19일 초청을 받고 참석해 중국 공산당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천 박사는 유엔에 철저히 중공의 죄를 조사하고 박해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